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4월 24일 수요일(주간)

제 366 호

불교신문사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상봉구 상봉동
041)734-2680
대진본신사 연신연 송정리

올 봉축행사 국민축제로

월드컵과 연계, 일반·외국인 동참 문화 한마당

지역별 각종행사... 거리연등 30일까지

"세계는 하나" 평화기원 우주탑 행진

올해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축제로 승화된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집행위원장 원택)는 16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위한 표어를 선포하고 연등축제와 문화행사, 자비실천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행사가 세계인

이 주목하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축제인 만큼 국민과 함께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이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문화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주요 장엄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사찰에서는 월드컵 축원을 하고, 월드컵 축하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해 축하등표와 축구공등을 20% 부착한 거리연등을 월드컵 개막시(5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12일(일) 동대문운동장-조계사 구간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에도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보고, 2002년 축구공등과 한일 월드컵 참가 32개국의 국기를 소개한다. 선두에 서는 한마을선원은 '세계는 하나다'라는 7m높이의 세계평화기원 우

주탑 장엄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탑골공원에 외국인 관람객 유치와 외국인 등 경연대회, 외국인 등 행진 등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팔만사천 마라톤대회, 등반기대회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국 62개 도시 지역봉축위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봉축 연등탑 점등법회, 어린이 청소년 대잔치, 니왕캐릭터악회, 차량 연주 나눠주기, 월드컵 성공기원 연꽃글씨만들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 월정사, 수덕사 등 8개 교구본사도 동지승 출가식, 월드컵 등

달기, 일본과 D조 예선 경쟁팀인 미국의 어린이 초청 동자승구대회, 어린이 글쓰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3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 회향하는 자비의 손길 나누기 행사도 다양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현대불교신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 행사를 전국 주요사찰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비롯, 지역 봉축위는 전국 곳곳에서 자비의 떡 나누기, 경로잔치, 장애인 초청잔치, 불우 이웃돕기 자비의 손길, 재소자 수제 및 위문 행사 등을 갖는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올해 봉축행사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축제가 되도록 지역별 사찰별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ism.com

법석 초대 송암 스님 경주 죽림정사 조실

마음공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막물웃고 머리를 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도 내 마음 편치 않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괴롭게 살지 마세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축열차 달리고 싶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한 이벤트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단연 봉축테마열차였다.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82일간 도시철도 5호선 방화-상일 구간을 오가며 불교의 세계와 문화를 선보였던 봉축테마열차를 관람한 인원만도 46만여 명에 달했으며, 봉축열차에 관한 문의전화도 5~8호선 147개 역에서 1만2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그런 봉축열차가 올해는 달리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봉축열차 이벤트를 맡고 있는 지하철 포교단체인 동경소리는 16일 '일부 주요종단이 불참의사를 밝힌 데다, 다른 종단들도 참여의사가 없어 올해 봉축열차 운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봉축열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종단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억2천여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 이상

을 이들 주요 종단들이 분담해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과 태고종은 예산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진각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천태종은 봉축열차 주관체인 종단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면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듯하다. 한 관계자는 "각 종단별로 1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아서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근래 들어 지하철은 달리는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테마열차운행을 위한 단체 및 기업들의 각축으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봉축열차 운행으로 가장 먼저 '지하철 문화공간 시대'를 열었던 불교계가 소위 '티도 안난다'는 종단 이기주의적(自利) 발상으로 올해 봉축열차운행을 무산시킨 것은 지하철에서의 포교 효과가 그 어느 장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봉축열차 운행시점인 5월8일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대응적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 대종사가 18일 열린 종정추대식에서 대종들에게 불자(佛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고영매 기자

법전 조계종정 추대 법요식

18일 조계사 대응전서 사부대중 4천여명 참석

김대통령 축하메시지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립 법전(林 法傳)대종사 추대법요식이 18일 조계사 대응전에서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 추대식은 도량결계(道量決界)의식인 육법공양(六法供養)에 이어 오후 2시 11번의 범종이 울리는 가운데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종산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의 인내로 종

정 법전스님이 대응전에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이어 총무원장 봉행사, 법전스님 행장소개, 원로회의 추대사, 대통령 메시지 낭독, 등단봉칭, 불자와 법장 봉정, 청법계, 종정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전대종사는 이날 "불마 피는 꽃은 新滿成佛(新滿成佛)소식이요, 가을에 부는 金風(金風)은 實相(實相)의 본분(本分)이다. 이밖에 법이 따로 없으니 當獲承當(當獲承當)기승(機承)하리라"는

법어를 내렸다. 법전대종사는 "새 종정에 하를 모시고 종단 내외의 대자불사를 원만성취해 나가는데 지혜와 원력을 결집하자"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법전 큰스님께서 조계종 11대 종정으로 추대되심을 축하드리며, 21세기 정신문화 선도, 남북화해 증진에 불교계가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협의회 미가입 신생종단 종단협, 인정 않기로

종단협에 가입하는 신생종단의 경우 한국불교 종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교종단협의회(종협) 정대, 이 하 종단협은 15일 제 38차 정기총회를 갖고,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신생종단 난립에 따른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종단협은 신생종단의 정부 등록 시 종단협과 사전협의를 거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문화관광부에 협

이웃위해 '희망의 등' 범함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등명 범함명(自燈明 法燈明)을 발원하는 등 불공양의 의미를 삼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를 조계사를 비롯 전국 주요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펼친다. 나누는 기쁨, 희망의 불교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올바른 신생문화를 조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다.

중심 02)733-7277

- 주최: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령나눔실천회, 교구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석굴암 모형관

1.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어느 곳에도 건립해서는 안 된다.
② 현재 계획대로 석굴암 경내에 건립해야 한다.
③ 건립하되 토함산 이의 지역에 해야 한다.
2. 모형관이 이어지면 방문할 생각이십니까?
① 한다 ② 안 한다

설문 참여: 4월 25일까지 buddhane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7호 9면에 실립니다.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원리 열리도다
世界的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2002년 한일 월드컵 원만성취 민족평화통일 불교증흥 기원
제7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경도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7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취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무심을 봉축하는 대길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명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2년 5월 1일(수)오전 11시
● 작품전 : 2002년 5월 1일~5월 5일(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등불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등 기념품 증정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별대법회장, 전시관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문문화행사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511-6210~5, 3443-9871~7, 3446-2158, 2185 FAX: 511-6216